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9> 헛된 생각과 인연을 끊을지어다

마음의 본뜻을 안 사람은 저자거리의 이 야기조차 훌륭한 법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제비 소리까지도 실상(實相)의 이치에 통달한 소리로 듣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바른 법을 말하고, 뿔나무 하는 아이나 소치는 늙은이가 다 깊은 도리를 논하되, 소 울을 닭 우는 소리 하나까지도 다 빠짐없이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이치를 알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선가귀감> 7장에서는 말한다.

吾有一言 絶慮忘緣
내가 한 마디 일러줄 말이 있으니
헛된 생각과 인연을 끊을지어다.
兀然無事坐 春來草自青
우뚝 앉아 있는 모습 더 할 일이
없으므로
봄이 올애 어린 풀잎 파릇파릇 돋는구나.

이는 남악(南嶽) 선사(禪師)가 헛된 생각과 인연들을 끊고 한가롭게 사는 도인들을 표현한 글이다. 여기서 '헛된 생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은 '참마음을 얻으라는 것'이니 이른바 한가롭게 사는 도인이 되라는 말이다. '헛된 생각'이란 중생들이 허상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경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에 집착하여 쓸데없이 많은 생각들을 일으켜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중생들의 삶이다. 이 생각들이 또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어 중생들은 괴로운 업만 키워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세속의 헛된 생각과 쓸데없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헛된 생각과 쓸데없는 인연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 드러난다. 부처님의 향기로운 삶을 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 된다.

여기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하여,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지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 도인은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 삶 자체가 아름답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다. 고요하고 편안한 삶은

집착 버리고 '참마음' 얻으면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 누려

지혜로운 삶이므로 그 삶 자체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큰 자비이다.

역지로 만든 자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에서 저절로 넘쳐흐르는 큰 자비이다. 중생들은 그런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 한다. 오고 가며 오고 가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 그것 자체로서 모든 중생들의 삶을 바꾸어 준다. 이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중생제도이다. 하는 일 없이 모든 중생의 삶을 바꾸어줄 수 있다. (無爲而作) 이런 삶을 철학무위(無爲無爲)라고 하여 <중도가> 첫머리에도 이런 도인의 한가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할 일이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은
망상이라 해도 애써 없애지를 않고
참됨이라 해도 애써 구하지를 않는다.

이 표현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자리에서 하는 말이다. '더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인 지계(持戒), 그 아름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인 선정(禪定), 고요한 마음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지혜(智慧)에 대한 수행을 다 마쳐서 다시 이것에 대해 더 배워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더 배울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배움이 끊어진 자리(絶學)'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배울 것이 없는 이 자리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더 할 일이 없다는 것(無爲)'은 참마음 자리를 깨쳐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공부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공부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런 한가로운 도인이 된다. 선종에서 '조사'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무엇을 망상이라 해도 애써 없애지를 않고, 무엇을 참됨이라 해도 애써 구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선가귀감>에서는 "우뚝 앉아 있는 모습 더 할 일이 없으므로 봄이 올애 어린 풀잎 파릇파릇 돋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모든 생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은 '참마음을 얻으라는 것'이니 이른바 한가롭게 사는 도인을 말한다. 아! 그 사람됨이 본다 인연이 없고 본래 할 일이 없으므로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구나. 푸른 산 푸른 들결 속을 마음대로 오고 가며, 어촌이든 숲을 파는 주막이든 걸림 없이 드나드는구나. 흘러가는 세월을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봄이 올애 예전처럼 어린 풀잎들이 새록새록 파릇파릇하구나. 또 서산 스님은 이 장에서는 따로 '한 생각에 마음의 빛을 돌이킨 사람'에 대하여 찬탄한다면서 계승으로 말한다.

將無人 賴有一個
아무도 없는가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구나.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만(人)' 자는 무슨 뜻?

말 그대로 풀면, '길상(吉祥)스럽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만덕이 원만한 모양' '진리의 본체' '부처님 신체에 있는 특이한 모습의 하나'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이런 까닭에 불상의 가슴이나 불화 탕화 등에 많이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징물로 널리 이용됐죠. 그러다보니 오늘날 지도를 보면 절 표시로 만(人)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자에는 열십(十)자에서 좌측으로 도는 좌만(左)과 반대로 도는 우만(右)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중앙 불교권에서는 주로 좌만자를 사용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만자도 함께 쓰이고 있죠. 원래 만자는 글자가 아니라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실 만자는 인도의 각 종교에서 이미 사용됐었고, 서양에서도 악을 물리치고 길상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쓰였지요. 우습게도 세계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우만자의 변형인 '卐'을 '하켄크로이츠'라 부르자, 클로이츠 :卍'라 칭해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 발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사실 불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0강 : 사생(四生), 생명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하여

오늘은 불교가 생명을 분류하는 독특한 방식을 일기하러 한다. 3장은 보살이 "일체중생(一切衆生)의 4류(類), 난생(卵生)과 태생(胎生)과 습생(濕生)과 화생(化生)과, 유색(有色)과 무색(無色)과, 유상(有相)과 무상(無相)과, 비유상(非有相)과 비유상(非無相)을" 저 언덕으로 건너온다고 했다.

사생-불교가 생명을 분류하는 법

이 분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생명을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기관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세부 분류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런 근대과학의 시선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여럿 가운데 하나일 뿐, 단 하나의 정확한 분류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기준과 해석이 다르니 다른 방식의 분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는 어느 시인이 순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물을 분류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호랑이나 돼지처럼 포유류라고 해서 어린 나를 놀래 췄다. "아니,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니. 물에서 살고 있고, 며칠 전에도 그물에 한 마리 걸려 올라와 어판장에서 팔려나가는데 보았는데요. 그리고 얼

마나 맛있는데..." 선생님은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고, 내가 다시 우기가 마칠때는 화를 내기까지 했다. 나는 지금도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틀다 옳다, 그리고 둘 다 틀렸다. 그런데 불교는 이 진실을 알고 있다. 진술과 판단의 일변적 진실과 그 한계를... 그것을 본적 논증한 것이 중관(中觀)의 변증법이다.

각설, 위에서 적은 <금강경>의 생명 분류 방식은 인도 전래의 것을 불교가 차용한 것이다. 큰조는 <금강경 영역>에서 이 독특한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 주고 있다. 기준은 세 가지이다.

- a. 수정(受精) 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4가지 유기체: 1) 난생(卵生): 알에서 깨는 것들. 2) 태생(胎生): 자궁에서 나는 것들. 3) 습생(濕生): 따뜻한 물기에서 생겨나는 것들. 가령 벌레나 곤충 나방 등. 4) 화생(化生): 신비하게 태어나는 것들. 수태나 배양 없이, 처음부터 사지를 말짱히 갖추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 신이하게 혹은 유령처럼 태어나는 신들이나 아귀들, 죽음과 삶 사이의 중간체의 인분들, 그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이들. 이 부류들의 수가 제일 많다.
- b.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이냐에 따른 분류: 1) 유색(有色): 형태를 가진, 물질적인 것

들. 2)를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2) 무색(無色):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물질적인 것들. 네 가지 형태 없는 선정(禪定), 즉 사선정(四禪定)에 어울리는, 가장 고귀한 신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c. 지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에 따른 분류: 1) 유상(有想): 지각이 있는 것.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기체. 2) 무상(無想): 지각이 없는 것. 네 번째 선정에 해당하는 천계(天界)에 살고 있는 신들이나 천사(天)들이 여기에 속한다. 3) 비유상비무상

행복동 사람들

요즘 눈은 어대신가요? 좋아하셨죠? ^^

네, 다 스님 덕이죠. 아, 여긴 사춘연이네요.

스님, 동생 애길 듣고 이렇게 웃으십니다.

속이 자주 아픈데 병원에서 시킨 약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별써 몇 년째 음식도 하지 않고 매일 경전을 읽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보살님 수행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자신만 보시는 건 아니신지요?

아니에요. 언니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는걸요?

아, 무슨...

마음이 넓어 주변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준비로 낭비도 많지 않으신가요?

아! 네, 제가 원래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해요.

음식을 줄이고 채식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넘쳐 버릴만큼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음식에 버리셨으니...

아시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절약의 지혜

배종훈 (bjh4372@hanmail.net)

넘치는 것,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33천(天) 세계는 의식의 단계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사람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1) 눈이 타고 있고, 눈의 인식대상인 물질이 타고 있다. 귀가 타고 귀의 인식대상인 소리가 타고 있다. 코가 타고 코의 인식 대상인 냄새가 타고 있다. 혀가 타고 혀의 인식대상인 맛이 타고 있다. 몸이 타고 몸의 인식대상인 감각이 타고 있다. 의식이 타고 의식의 인식 대

내가 변해야 한다. 이런 갈등과 대립, 고통과 슬픔을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없을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실험이 있었다. 전쟁과 정변, 혁명과 개혁들.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개 특정한 사람이나 부류에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나는 그 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와 지배 욕을 본다. 아난, 그렇게 불건전한 편견과 정념들에 의해 추동되는 어떤 행동도 부작을 얻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 문제의 근본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가 비난해 마지않는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내 손가락질은 옳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은 틀릴 것인가. 나는 분열과 갈등으로 추악하고 잔인해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것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지낼 때, 무엇인가가 바뀔 것이다. 불교는 바깥보다 우선 안을 다스리라고 권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아무 것도 보태주지 않고, 다만 빛쟁이처럼 떨어간단. 불교에 쟁쟁할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일직자처럼 돌아가는 것이 좋다. 줄 것이 없었기에 불교는 나중에 '붓다는 왜 왔는지 모르겠다'거나 "붓다는 40년간을 장광설(長廣說)을 늘어놓고서도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불교는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오히려 빼앗으려 한다. 우리 내부에 있는 오래된 독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이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너도 자유로워지고 세상은 평온해진다. 붓다가 말했다. "열반은 탐욕과 증오, 기만의 끝이다." (상유타 니카야)

한국학중앙연구원